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공보담당관 지정장 한석리  
전화 033-660-4311 / 팩스 033-660-4341

## 보도자료 2019.1.31.(목)

자료문의 : 부장검사실  
전화: 033-660-4322  
주책임자: 부장검사 박승환

# 강원도 공공조형물 공모 비리 사건 수사 결과

## - 지자체공무원, 브로커, 작가, 대학교수 등 9명 기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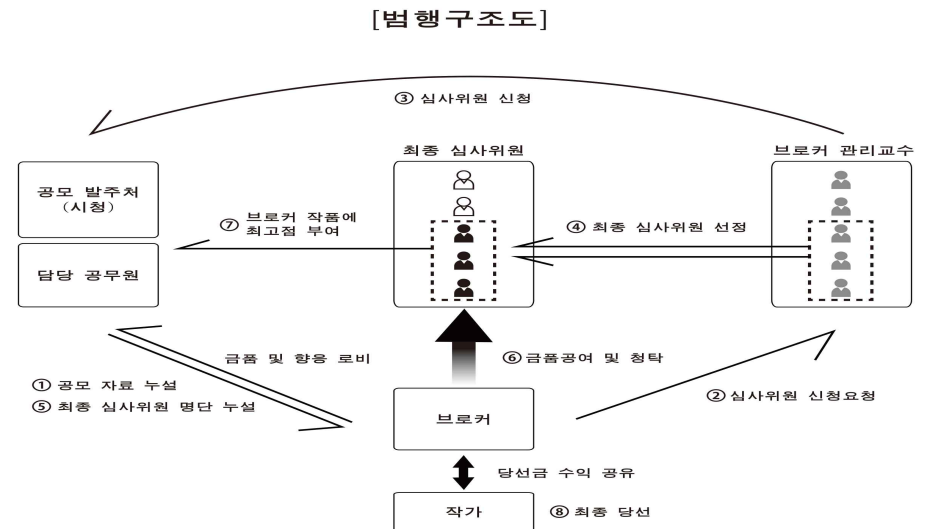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강원도 내 7개 공공조형물 공모(공모가 합계 91억원 상당)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 공무원, 대학교수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형물 설치업체 대표 및 브로커 3명,
  -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모에 관한 내부정보를 누설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명,
  - 작가 및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탁받은 작품에 최고점수를 부여한 대학 교수 등 3명,
 ⇒ 총 9명을 인지하여 8명을 구공판하고(4명 구속), 1명을 약식기소 하였음
- 브로커가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조형물 공모에 관한 내부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평소 관리하던 교수들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신청하게 하고, 위 교수들이 최종 심사위원이 될 경우 최고점을 부여하도록 청탁함으로써 공모에 당선되는 수법의 비리를 확인하였음

### 1 수사 경과 ※ 피고인별 공소사실 및 처분 내역은 별첨 1 참조

- '18. 7.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브로커가 심사위원에게 청탁하여 최고점을 받아 당선된 혐의로 브로커 및 작가 등 3명 기소
- ※ 그 중 2명에 대해서는 별개의 혐의가 확인되어 '19. 1. 추가 기소

- '19. 1. 강원도 내 7개 공모 관련,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1명, 지자체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자체 공무원 2명, 대학교수 2명을 불구속 기소
- ※ ① 강릉역(강릉시청), ② 평창동계올림픽(강원도청), ③ 강릉빙상경기장(강원도청), ④ 태백통리(태백시청), ⑤ 북평민속시장(동해시청), ⑥ 철암단풍향기마을(태백시청), ⑦ 간현(원주시청) 등 총 7개의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브로커 등은 위 공모 중 강릉역, 태백통리, 북평민속시장, 간현 등 4개 공모에서 당선

### 2 수사 결과



#### 1 담당 공무원 상대 금품 등 로비하여 심사에 관한 내부 정보 취득

- 브로커는 평소 친분이 있던 발주처 담당 공무원에게 접근하여 로비를 통하여 공공조형물 공모에 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공모 심사 방식을 브로커가 추천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청탁

#### 2 평소 관리하는 대학교수들이 최종 심사위원이 되도록 함

- 브로커 및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들은 학연·지연을 통해 친분이 있는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선물과 향응을 제공하며 위 대학교수들을 자기 쪽 사람으로 관리하였음

- 발주처에서 공공조형물 공모 심사위원 공개모집, 추천요청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최대한 많이 심사위원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편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③ 최종 심사위원 상대 로비하여 주관적 평가에서 최고점 획득**

- 담당 공무원 또는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대학교수들을 통하여 공공조형물 공모 최종 심사위원 명단에 관한 정보를 입수

- 브로커 및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는 위 정보를 토대로 최종 심사위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제출한 작품의 제목·형태에 대하여 설명하고 금품을 공여하며 최고점을 부여하도록 청탁

- 청탁을 받은 **최종 심사위원들은 공모 심사에 참여하여 부탁을 받은 작품에 편파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경쟁업체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함으로써 청탁업체의 작품이 큰 점수 차이로 당선되도록 하였음

※ 브로커는 심사 이후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심사결과표를 입수하여 자신이 로비한 대학 교수가 실제 최고점을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④ 당선금 분배 및 영업비 정산**

-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와 브로커는 사전에 당선을 전제로 이익금 분배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가 공모에 당선되어 당선금을 받을 경우 브로커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와 별개로 로비활동으로 인한 영업비용을 정산해 주었고,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금원 및 로비활동 비용은 모두 조형물 제작비용으로 충당되었음**

※ 제도개선 관련 참고사항은 별첨 2 참조 ☒

**[별첨 1]**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및 처분 결과】**

피고인 (직업)	죄명	공소사실 요지	처분
① A00 (58세, 건축사)	위계공무 집행방해	'17. 3.~6.경 ① 강릉역, ② 태백 통리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심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여 당선됨으로써 강릉태백 시청의 공모 당선작 선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	구속 기소 ('18. 7. 17.) 향소심 선고 징역 10월 ('19. 1. 10.) 추가 기소 ('19. 1. 30.)
	입찰방해	'17. 3.~7.경 ① 평창동계올림픽, ② 강릉빙상경기장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최종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	
	배임증재	'17. 6.경 최종 심사위원 2명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면서 합계 700만원을 교부	
	뇌물공여	'17. 3.~4.경 강원도청 공무원 000에게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사, 술 안주, 숙박, 골프 비용 등 합계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② B00 (49세,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위계공무 집행방해	'17. 3.~6.경 ① 강릉역, ② 태백 통리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심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여 당선됨으로써 강릉태백 시청의 공모 당선작 선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	구속 기소 ('18. 7. 17.) 향소심 선고 징역 8월 ('19. 1. 10.) 추가 기소 ('19. 1. 30.)
	입찰방해	'17. 3.~7.경 ① 평창동계올림픽, ② 강릉빙상경기장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최종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	
③ C00 (44세,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위계공무 집행방해	'18. 8.경 간현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최종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여 당선됨으로써 원주시청의 공모 당선작 선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	구속 기소 ('19. 1. 18.)
	입찰방해	'16. 9.~'18. 5.경 ① 북평 민속시장, ② 태백 통리, ③ 철암 단풍 향기마을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최종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점을 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	
	배임증재	'16. 9.~'18. 8.경 ① 북평 민속시장, ② 태백 통리, ③ 철암단풍 향기마을, ④ 간현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최종 심사위원 2명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면서 합계 1,000만원을 교부	

④ DOO (53세, 5급 지방 공무원)	수료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17. 3.~4.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AOO으로부터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17. 4.~7.경 평가위원 후보 신청자 명단, 심사결과 등 심사 관련 자료를 AOO에게 누설	구속 기소 ('19. 1. 30.)
⑤ EOO (57세, 4급 지방 공무원)	공무상 비밀누설	'17. 5.경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AOO에게 전화로 공무상 비밀인 심사위원 구성 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 심사관련 내용을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불구속 기소 ('19. 1. 30.)
⑥ FOO (56세, 5급 지방 공무원)	공무상 비밀누설	'17. 6.경 태백 통리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AOO에게 전화하여 예비·최종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등 심사 관련 자료를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불구속 기소 ('19. 1. 30.)
⑦ GOO (57세, 대학교수)	배임수재	'16. 9.~'18. 8.경 ① 북평 민속시장, ② 태백 통리, ③ 철암 단풍 향기마을, ④ 간현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COO로부터 현금 800만원, AOO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음	불구속 기소 ('19. 1. 18.) 추가 기소 ('19. 1. 30.)
⑧ HOO (69세, 대학교수)	배임수재	'18. 8.경 간현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COO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음	약식 기소 ('19. 1. 18.)
⑨ IOO (58세, 前 공공기관 부장)	배임수재	'17. 6.경 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에서 AOO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음	불구속 기소 ('18. 7. 17.) 1심 선고 벌금 500만원 ('18. 9. 14.)

[별첨 2]

**【제도개선 관련 참고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조형물 설치 공모의 경우 설치 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이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에 관한 사후 감독도 부실한 실정임
- 본건 수사결과, 위와 같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개별 공모마다 심사위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심사위원 풀을 이용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② 통상 7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 수를 15인 이상으로 증원**하며, ③ 현재 심사위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학교수 외에 관련 분야 공무원 및 전문기관 종사자가 일정 비율 이상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강제하고, ④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선정 사실을 심사 직전에 통지함으로써 업체들이 심사위원에게 청탁할 여지를 봉쇄하고, 청탁 받은 심사위원이 당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심사위원들이 업체의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선방안 검토를 위하여 **2019. 2월 중으로 강원도청 및 산하 지자체 담당부서로부터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될 경우 입법개선안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